

# 남해 독일마을+가고 싶은 삼동면 관광지 댓글 이벤트

장금성기자 | 승인 2025.02.06 17:12 | 7면

해시태그친구소환 이벤트...23일까지



▲ /남해군

국민고향 남해와 독일마을을 품고 있는 삼동면 관광자원을 알리는 이벤트가 오는 2월 23일(일)까지 진행된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(이사장 장충남)은 파독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향인 독일마을 뿐 아니라 독일마을을 품고 있는 삼동면의 여러 관광자원도 입소문 내고자 친숙한 댓글

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

경상남도·남해군·남해관광문화재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'독일마을 이동수단 여행 상품'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는 '친구소환 및 해시태그' 참여로 진행된다.

먼저 재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댓글에 친구 이름을 소환한다. 이어 2025고향 방문의 해를 맞이한 남해군의 따스한 슬로건 '국민고향남해'와 '독일마을'을 필수로 달고, 삼동면 관광자원 14곳 중 가고 싶은 1곳을 정해 댓글로 함께 적으면 응모가 된다. (댓글 예시- @친구이름 #국민고향남해 #독일마을 #물건방조어부림(삼동면관광지))

이번 '가고싶은 독일마을+삼동면관광지 PICK 이벤트'의 응모기간은 23일(일)까지며 당첨자는 선정을 통해 DM으로 연락처 수집 후 경품을 발송한다.

조영호 본부장은 "국민고향남해의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인 '한국관광100선'에 선정됐다. 독일마을을 품고 있는 삼동면 권역의 여러 관광지를 함께 찾고 즐기는 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벤트를 기획했다"고 말했다. 장금성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장금성기자